

테마칼럼

여성세계

정치브리콜

경제의 눈

문화칼럼

부(富)와 행복의 관계



정대영

〈광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새삼스러워진다.

”

얼마전에 영국의 신경경제학자(NEF)이 삶의 만족도, 평균수명, 환경적 요인을 계산해서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78개국 중 102위이고, 1위는 국가이름도 생소한 바누아투라는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1위 바누아투는 남태평양에 80여개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1980년에 독립했으며 인구는 20만으로 벤지프가 유래된 나라로 알려졌다. 이 순위에 의하면 일본이 95위, 캐나다 111위, 프랑스 129위, 미국이 150위고 아시아 국가중에는 1위가 베트남 뒤를이어 부탄,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은 19위, 한국 21위의 순으로 볼 때 국민소득과 행복지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국민소득 = 행복지수?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세계에 유례없는 격동적인 경제, 사회적 변동을 겪으면서 고도의 경제성장과 도시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극심한 경쟁사회가 되었고 그 결과로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소득은 높아지고 경제성장은 눈부시게 이루어졌지만 성장의 그늘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도 너무 많은 것 같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농촌사에서 가장 필요한 협동농업의 공동체 문화를 수천년

간 지켜왔다. 두레라는 우리 고유의 문화가 대표적인 것이다. 모내기과 같은 농사철이 되면 내는 내는 할 것 없이 서로가 도와서 농사일을 하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친밀하게 지냈으며 먹을것이 생기면 같이 나누어 먹고 이웃집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으면 걱정해주는 것이 많은 문화였다. 가난해도 거의 비슷하게 가난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도 적었고 큰 욕심없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아시아 국가들 중 아직도 농사 위주의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개발이 덜 된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은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돈의 원리와 경쟁의 원리가 주도하면서 행복한 삶의 질이 떨어져 갔다. 과학자들은 돈이 많아졌는데도 행복감이 비례해서 높아지지 않는 것도 남과 비교해서 나의 삶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막대한 자원을 소모하고 환경을 파괴하여 자연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룩한 경제성장과 국민 소득 증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치열한 경쟁과 양극화에 따른 절망감으로 연간 1만 2천명에 이르는 국민을 스스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성장은 무엇인가 잘못된 성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경제력은 개인의 행복에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지만 돈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어서 논

을 99마지기 가진자가 100마지기 채우기 위해 가난한 이웃의 1마지기 논을 탐내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며 남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더 가졌다고 애쓰는 한 행복은 멀어져가기 때문이다.

행복감, 수명에도 영향 끼쳐

나는 내 주변에서 물질적인 조건으로 볼 때 불만이 가득할 수 밖에 없는 사람 중 정말 행복해하고 얼굴이 밝으며 편안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들을 볼 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다.

이런점으로부터 인간의 행복감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마음을 비울때 더 높아지며 가장 행복하고 집단과 가장 불협한 집단과는 수명이 9년이 차이 난다는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에드워드 교수말 처럼 행복감은 수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새삼스러워진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남대 문화대학원 파행 대학 책임 크다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이 개원 1년 만에 수업거부 등 파행 운영되고 있다. 수업 중 한 교수의 '아줌마 발언'으로 촉발된 문화전문대학원의 파행은 학생이 학사 및 교육 과정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26일부터 1주일 간 수업을 거부하는 데까지 비화했다.

이번 사태를 불러 온 모 교수의 '아줌마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 특히 우리 대학의 관단이다. 대학원 교수, 그것도 수업 중에 "수업연장으로 술도 마시고 해야 되는 데 아줌마라 그것도 안 되고... 판 수업 받아라"고 한 것은 교수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교수의 말대로라면 아줌마는 학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어떻게 대학교수가 이런 불상스러운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대학원생들의 수업거부는 교수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지난 1년간 대학의 교육 과정과 학사 운영에 대한 불만이 '아줌마 발언'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대학 측이

교육공간이나 교수진 충원 등 철저한 준비 없이 서둘러 개원하는 바람에 '문화전문대학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임교수가 6명에 불과한데다 전문대학원으로서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문화전문대학원은 광주 문화수도 조성에 따른 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설됐다. 또한, 학비도 일반 대학원의 거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비싸다. 그렇다만, 전문대학원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환경과 교수진을 갖춰야 했다. 따라서 수업거부 사태는 대학 측에 그 책임이 있다.

문화전문대학원은 광주가 명실상부한 문화수도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전남대는 이번에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문화전문대학원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농협 분리안 확정... 농민 위한 조합폐야

정부가 29일 최대의 농민조직인 농협 분리안을 확정했다. 10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농협중앙회를 오는 2017년 신용과 경제, 교육·지도 등 3개의 별도법인으로 분리하기로 한 것이다.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정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농협은 전국 곳곳에 점포를 두고 있고 자산규모 288조원에, 한 해 순이익만 1조원에 달하는 '공룡' 조직이지만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교육 및 지도 사업이 한 곳에서 이뤄지면서 전문성과 투명성이 떨어지고 판매와 유통 등 경제분야보다는 돈장사라고 할 신용분야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농협을 분리해야 할 명분은 충분하다. 문제는 경제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다. 경제부문은 일선조합에서 약 8천억원, 중앙회에 1천500억원 등 해마다 1조원에 가까

운 적자를 내고 있다. 경제사업 적자의 상당부분을 은행 등 신용사업의 이익으로 메워온 것이다.

정부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소홀히 했던 농산물 판매와 유통망 확충 등 농촌과 농민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정부는 13조원의 투·융자를 통해 판매 및 유통 분야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일선 조합 판매사업을 조직화해 2015년까지 국내농산물의 유통 분담 비율을 60%(18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농협은 10년의 준비기간을 촉박하다고 한다. 경제사업이 자립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분리에 필요한 자본을 2016년까지 해마다 8천250억원씩 축적하는 것도 큰 부담일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할 명분은 충분하다. 문제는 경제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다. 경제부문은 일선조합에서 약 8천억원, 중앙회에 1천500억원 등 해마다 1조원에 가까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로 칼럼

김대용

환자 중에서 새우 등처럼 굽어있는 꼬부랑 할머니가 진로실을 들어오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곤 한다. 요즘은 얼굴 성형은 기본이라고 하는데 척추 성형수술을 하면 반듯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나이에 무슨 성형이냐고' 하곤 한다. 하지만, 구부정한 허리는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인 고통을 동반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성형이 아니라도 치료받아야 할지 모르나 좋은 일인가 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심각한 질병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질병들이 최근에는 삶의 질을 심각히 위협하는 질병이 되곤 한다.

척추도 성형수술을 한다

그중의 대표적인 질환이 골다공증이 아닌가 싶다. 특히 골다공증은 골다공증 자체의 문제보다는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의 압박 골절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척추의 압박 골절이 젊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경우는 추락 사고나 교통사고 등 아주 심한 외상 후에 발생하지만, 골다공증이 심한 사람에게는 가벼운 외상에 도 불구하고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가벼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거나, 엉덩방아를 찧거나, 심지어는 가벼운 기침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서 외상을 당한 병력이 없이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압박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전에는 허리가 가볍게 아팠는데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해진 경우라면 외상의 병력이 없더라도 꼭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 압박 골절을 의심해야 보아야 한다.

〈광주우리병원 원장〉

기고

박래영

얼마 전 세계적 권위를 지닌 경제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는 2015년 중국이 세계 제2위의 소비시장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4년이면 중국 국민 1인당 GDP(구매력기준)가 1만 3천달러에 달하며 1억 9천만명에 이르는 중산층의 경우 3만 9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바야흐로 중국이라는 커다란 흐름을 잘 활용하여 우리의 실리를 추구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과거 70~80년대에는 일본과 미국 이른바 한태평양 지역을 겨냥하여 경부·남해안축 중심의 제조업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했지만, 이제는 중국이라는 거

전남 서남권 개발은 시대적 요청

대시대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맞추는 환경해결 시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세계지도를 펴면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의 중심에 전남의 서남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남권이 그간의 지역개발정책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지역이며 낙후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서남권은 2천여명에 이르는 아름다운 섬과 깨끗한 바다, 세계 4대 갯벌중 하나인 서해안 갯벌, 연평균 섭씨 14도 이상의 온화한 기후, 풍력·조류·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또 반경 1천km내에 인구 500만명 이상의 베이징, 홍콩, 도쿄, 상하이 등 19개의 주요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무엇보다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미국의 동부지역까지 논스톱 비행이 불가능하지

〈전남도 서남권발전추진지원단장〉

통신요금 선결제로 무분별한 사용 막아야

우리나라의 통신요금 결제방식은 후불이다. 좋은 말로 후불이지 사실상 외상이다. 이 때문에 과잉사용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급기야 청소년 자살까지 볼 수 있다. 특히 이동통신의 데이터 통화료가 문제다. 데이터 통화료는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료인데 이는 통화시간이 아니라 접속한 데이터양(패킷)에 따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동영상이나 게임 등을 즐기는 청소년들은 여기저기 서핑을 하다 엄청난

요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선진국에서는 통신요금을 선불로 내도록 해 선납금액을 초과하는 사용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미국은 선결제가 80%, 일본은 60%, 유럽은 40~95%에 이른다고 한다. 중국은 100% 선결제요금이다. 우리나라도 우선 학생만이라도 요금선불제를 의무화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서 청소년들의 이동통신 요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혜옥·광주시 동구 서석동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로 산불예방하자

벌써 나무심기가 시작됐다. 소식이 들린다. 반면 또한 동시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으니 은근히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특히 호남지역의 경우 날씨가 유난히 따뜻해 화재위험이 유난히 더 높기 때문에 시민 도민 모두가 산불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불감시요원을 늘려 방화 활동과 동시에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인화성 물질을 휴대하고 사람의 입산을 철저하게 금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불감시요원을 활용해 산중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하고 국립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카메라 촬영을 단속을 전국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치단체가 아무리 총력도로 산불예방을 해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나 협조가 없으면 소용없으니 전 시민이 산불방지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산불방지 동참 노력에 실천될 때 무심한, 길게는 수백년을 가꿔온 우리의 산림을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홍명호·광주시 서구 풍암동

無等鼓

케이블 TV 채널 CGV는 오는 4월3일 부터 '크리미널 마인드'(criminal minds) 속편을 방영한다. 전편 시리즈의 팽팽한 긴장에 매료된 시청자들의 요청 때문이다. '크리미널 마인드'는 FBI의 '행동 분석팀'(BAU: Behavior Analysis Unit)이 '과학적 증거로 잡을 수 없는' 범죄를 해결해가는 드라마다. 행동 과학·성범죄·감박 범죄 분야의 전문가 등 프로파일러(Profiler)로 구성된 BAU는 인간의 '심리'에 주목한다. 사건 현장의 흔적에서 범인의 연령·직업·성별·가정 환경 등을 추려, 다음 범행을 예측(Profiling)하는 것이다. 프로파일러는 1만2천여 명의 FBI 정 요원 중에서도 29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범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들의 제 1 수칙(守則)이다. 프로파일링 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람은 FBI의 전설적 수사관 존 더글러스(John E. Douglas)다. 그는 술한 연해 살인범 검거 과정을 꼼꼼히 기록,

'마인드 헌터'(Mind hunters)라는 책을 쓰기도 했다. 섬뜩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양들의 침묵'(The Silence of the Lambs, 1991)은 FBI 심함요원 스타링(조디 포스터)이 식인(食人) 의사 한니발 렉터(안소니 홉킨스)의 도움을 받아 몸집 큰 여성만을 살해, 가족을 버기는 '버퍼로 빌'의 궤적을 추적하는 영화다. 덴젤 워싱턴과 앤젤리나 졸리가 열연한 '본 컬렉터'(The Bone Collector, 1999)도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치열한 두뇌 싸움을 보여준다. 울 들어 광주시내를 공포로 몰아넣은 노래방 강도가 과거 노래방 업주나 종업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범인이 '학습효과'로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미궁에 빠진 노래방 강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안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